

# 잘나가던 상무지구 “장사 안되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상권이 계속되는 불경기와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올 1분기 실질임금이 1년 6개월 만에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등 유흥가가 밀집된 상무지구에 ‘돈 쓸 사람’이 줄어들었고, 대형 건물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주변 상권 위축, 최근 계속된 장마에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고 보니 ‘잘 나가던’ 시절이 그리울 지경이다.

◇유흥가 매출 30% 이상 감소=노래방과 주점 등이 몰려들면서 상무지구는 몇 년새 광주를 대표하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의 행보는 심상치 않다. 특히 유흥업을 중심으로 올 초보다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 유흥업계의 설명이다.

3년 째 콜롬버스 시네마 근처에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최모(46)씨는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그러저러 장사가 됐지만 올해 초부터 손님이 점차 줄어들더니 이달 들어 손님이 거의 없다”며 “높은 임대

## 장마·휴가철 겹쳐 유동인구 크게 줄어 실질임금 감소 유흥가 손님 발길 ‘뚝’ 멀티플렉스 극장 폐점 주변 상권 위축

료에 비하면 매출이 안 나와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답답해 했다.

인근의 다른 노래방 업주 박모(여·39)씨도 “유흥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요즘은 하루 10명 채우기도 힘들다”며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하면 30% 이상 뚝 떨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는 실질임금 감소와도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6개월째 물가상승률이 4%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실질임금은 236만4074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246만4718원보다 4.08% 감소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한 수입업자 전문점 업주는 “손님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명당 소비하는 비용)도 30% 이상 감소했다”며 “손님들이 술집을 찾아오지 않으니 매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건물 공동화에 유동인구도 줄어=프리미엄 아울렛을 굳건히 지키던 CGV와 메가박스 상무점 등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폐점하면서 일대에 유동인구가 사라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CGV가 지난 2009년 광전동 유스퀘어로 이전했고, 대신 들어섰던 메가박스 상무점은 지난해 4월 폐점함에 따라 인근을 찾던 젊은층이 크게 줄었다.

이는 유흥업소와 함께 건너편에

늘어난 커피숍 거리까지 타격을 가져왔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관계자는 “예전에 극장이 있었을 때와 현재 분위기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걸어서 이곳에 들러 커피를 사가던 젊은 층 손님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계속된 장마도 유동인구의 감소를 부추겼다. 공나물국밥으로 잘 알려진 한 식당 관계자는 “새벽녘이던 해장을 하러 오는 손님이 항상 식당 절반 가량을 채웠지만 장마철에는 거의 한산했다”며 “이제 휴가철까지 됐으니 당분간은 ‘여름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유흥업으로 대변되던 상무지구에 최근 업종의 다변화 바람이 부는 듯 하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몰려있던 유흥업소 일부는 빠져나가고 대신 새로운 업종이 자리를 채우며 어느 정도 상권의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 20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국제회의전람센터에서 설명회 현대차그룹 중국사업총괄 부회장, 소남영 기아차 중국법인 대표, 중국 정부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 소형 세단 'K2'의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기아차 제공>

# 양동시장 사회적 기업으로 키운다

중기청, 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원

우체국, 50억 규모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광주 양동시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된다. 중기기업청은 20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 방안'을 확정, 2013년까지 전국 100곳의 전통시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57개 전통시장 중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한 군데도 없지만, 광주 양동시장, 부산 화지시장, 부산 부전시장, 온양온천 전통시장 등 4곳이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중기청은 우선 이곳 4개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공모델을 발굴한 후, 상인회나 상권관리기구 등에 이를 보급해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사회적 기업 전환 노력을 기울이는 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신용보증 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정기적으로 우수 시장을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225개 우체국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총 5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20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회장 김사직)과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우정청과 광주·전남지방 25개 총괄우체국도 이달 말까지 인근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역 우체국은 구내 식당 식자재와 명절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인근 전통시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등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액을 지난해 5억5000만원에 비해 10배가량 많은 50억원 규모로 늘려 자매결연한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20대 취업 '여풍당당'

# 편의점 업계 "고맙다 불별더위"

## 신규채용 여성이 남성 추월

신규 채용시장에서 무게의 추가 여성으로 늘리고 있다. 고용시장 전체적으로 남성이 우위에 있지만 20대만을 놓고 봤을 때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지 오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2%를 기록, 20대 남성 고용률인 58.5%보다 소폭 높았다. 올해 들어 1분기에 20대

여성 고용률이 57.5%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57.3%)을 추월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남성 고용률을 넘어섰다. 전체 연령대를 보면 올해 2분기에 남자는 10명당 7명(71.1%)이 일자리를 얻는 반면 직업이 있는 여성은 10명당 5명(49.2%)이 채 안됐다. 전반적으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시야를 20대로 좁히면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앞지른 셈이다.

연철뉴스

## 아이스크림 등 매출 급증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편의점 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외치고 있다.

20일 보광해미리마트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 9일부터 12일보다 매출이 21% 신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이 가장 먼저 시작된 호남지역은 24%가 상승, 더위로 인한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품목별로 보면 아이스크림이 53%, 아이스크림류 50%, 생수 42%, 음료 30%, 유제품이 10%가량 매출이 올랐다. 휴가를 앞두고 세면도구 세트와 선풍기 등 무더위용 각자 30%, 50% 이상 늘어났다.

세븐일레븐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점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GS25도 지

난 18일부터 19일까지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주 같은 기간 대비 12.2% 올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111% 상승한 도시락이었다. 이어 이온음료 98.9%, 아이스크림 78%, 생수·차 69.7%, 맥주 39.3% 순으로 매출이 올랐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증정행사 등을 통해 '더위 매출'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광해미리마트는 21일부터 KBO 제휴 아이스크림 야왕바 카페 라테(900원), 아신바 밀크(900원) 2종을 출시하며 편의점 업계 최초로 1+1 증정행사를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한다. 스크류바 등 인기 아이스크림 9종 (900원)은 2+1 행사를 진행하고 하늘보리 등 인기 음료 13종도 1+1 행사가 실시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지노위, 파업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들 복직 결정

노사 갈등으로 해고된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들에게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일 민주노총 산하 금호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최희자 김모씨와 곡성지회장 정모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법 파업과 가동 중단 등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노위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기간 등 징계절차를 사측이 어겨 부당해고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본부세관, 전기전자산업 FTA 활용 설명회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19~20일 삼성전자광주사업장에서 전기전자관련 업체대표와 실무자 등 470명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산업 FTA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 CEO와 임원 2+1 행사를 진행하고 하늘보리 등 인기 음료 13종도 1+1 행사가 실시된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원재료 공급자와 생산자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수출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해 FTA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향후 중소기업 및 FTA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개요와 활용 필요성, 생산물품 원산지관장방법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최재호기자 lion@

▲ 코스피지수	2154.95 (+24.74)
▲ 코스닥지수	526.61 (+2.13)
▲ 금리 (국고채 3년)	3.75% (+0.04)
▲ 원·달러 환율	1055.30원 (-4.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전복장이 전문점

#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우어탕

양식장 직영 도·소매  
할인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